

서울말의 母音體系

李 炫 馥

(서울대학교)

1. 머릿말
2. 서울말과 표준말의 정의
3. 서울말의 모음체계

1. 머릿말

국어의 모음체계 특히 서울말의 모음체계를 논함에 있어 애매한 점과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의도이다.

2. 서울말과 표준말의 정의

오래전부터 서울말과 표준말은 동일시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표준말은 서울말이요, 서울말은 곧 우리나라 표준말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리고 표준말인 서울말은 흔히 “서울 태생의 중류계급이 쓰는 말”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에서 널리 알려진 서울말의 정의는 상당한 수정을 요한다고 보며, 서울말이 곧 우리나라의 표준말이라는 견해도 약간 무리가 있는듯 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2.1 서울말의 정의

“서울 태생의 중류계급이 쓰는 말”이란 서울말의 정의에서 “서울태생”과 “중류계급”이란 두 가지 제한 조건은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같은 서울태생이라 해도, 음성학적으로 볼 때 모음음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을 완전히 통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대로 서울에서 자라온 사람과 지방사투리를 쓰는 부모대에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낳아서 자란 사람사이에는 음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류계급이라는 제한 조건은 특히 오늘날의 사회현실에 비춰볼 때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필자는 의심을 갖고 있다. 팔일오 광복과 육이오 사변 그리고 그 이후의 사태등을 겪는 사이에 서울의 인구는 팽창을 거듭해 왔고 그중에는 서울말 이외의 方言을 쓰는 各地方인들이 상당수, 아니 대다수 이고 서울 본토박이들은 비율이 점점 낮아 진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옛날의 중류계급이라는 것이 그간의 격변한 사회현실로 미루어 그 수를 논하기 전

에 아직도 존재하느냐 없느냐가 큰 의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 옛날의 중류계급이란 오늘날 거의 없고 있다해도 그 수가 극소일 줄로 믿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극소수의 중류계급이 쓰는 말을 서울말로 삼고 또 나아가서 표준말로 삼아야 하느냐? 서울말의 정의에 쓰이는 “서울 태생의 중류계급”이라는 조건은 아무래도 언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다른 각도에서의 검토가 요청된다고 본다.

2.2 표준말

앞에서 이미 서울말과 표준말의 관계를 간단히 살핀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말이 곧 표준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일 언어집단의 구성원중에 상당수가 쓰고 있고 어느 방언보다도 전체적으로 理解하기 쉬운 방언을 그 言衆의 표준어로 본다면, 수가 적은 “서울태생의 중류계급”이 쓰는 서울말은 표준어로서의 자격이 완전치 못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서울말의 정의를 완화하고 폭을 넓혀서 좀더 많은 수의 서울지방 사람들이 쓰는 말을 서울말과 표준말로 삼아야 타당하다고 본다.

2.3 세대에 따른 서울말의 차이

서울태생의 서울사람이 쓰는 말도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世代에 따른 서울말의 차이를 들수 있겠다. 즉 오늘날 삼십대 이전과 삼십대 이후 간에는 여러 모로 말의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삼십대 이후 층이 규칙적으로 구별하는 모음장단의 구별을 삼십대 이하층은 잘 혼동한다. 가령 “사과(謝過)”와 “사과”는 첫 음절 모음의 長短에 따라 /sa:gwa/와 /sagwa/로 삼십대 이후가 구별하는데 비해 삼십대 이전은 둘을 모두 /sagwa/로 發音해 음운대립이 성립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미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 몇개 예를 더들면,

“시장”(市場) : “시장”(하다)

“사정”(事情) : “사정”(査定)

“말”(言語) : “말”(馬)

“가정”(假定) : “가정”(家庭)

“부대”(附帶) : “부대”(部隊)

“구조”(救助) : “구조”(構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母音長短의 혼동은 의미의 혼동뿐 아니라 장단과 강세(強勢)의 결합으로 이루어 지는 전체적인 리듬(rhythm) pattern에도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둘째로, 후설 평순 모음 “ㄴ”의 음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 역시 世代에 따른 서울말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삼십대 이후의 연령층은 “ㄴ”가 길 때는 [ə-] 또는 [v+]로 나고 짧게 날 때에는 [ʌ]로 되는데 반해, 삼십대 이하의 젊은 층은 항상 [ʌ]로 내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벌”(bee) [bæ:l] : “벌”(punishment) [bʌl]

“설”(new year) [sæ:l] : “설”(說) [sʌl]

“거리”(距離) [gæ:ri] : “거리”(街) [gʌri]

“없다”(無) [æ:pta] : “엎다”(負) [ʌpta]

위의 예에서 삼십대 이하층은 [æ:]를 모두 [ʌ:] 또는 [ʌ]로 소리내기 때문에 삼십대 이후 층이 구별하는 단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말한 [æ:]와 [ʌ]는 삼십대 이후에서는 한 phoneme의 allophones로서 長短에 따라 그 음가가 달라지고 삼십대 이전층에서는 길건 짧건 음가가 같기 때문에 음운체계의 내용에는 어느 경우이고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æ:]와 [ʌ]가 비록 삼십대 이후 층의 서울말에서 단순한 變異音으로 나타날 뿐이지만, 삼십대 이하층의 말에서는 그러한 변이음의 분포가 없기 때문에 世代에 따르는 서울말의 차이를 표시해 주는 한 가지 尺度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세대간의 서울말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특징으로서 반폐 전설 모음 /e/와 반개 전설 모음 /ɛ/의 관계를 들을 수 있다. 즉 삼십대 이후는 /e/와 /ɛ/를 별개의 음운으로 구별하므로 아래에 든 최소대립어 (minimal pair)들을 규칙적으로 구별하지만, 삼십대 이전 층은 /e/와 /ɛ/의 혼동으로 구별을 잘 못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혼동의 원인은 /ɛ/가 /e/로 접근한데서 비롯된 듯하다. 예 :

“배”(禾)/be/ : “배”(梨)/be/

“세”(三)/se/ : “새”(鳥)/se/

“계”(契)/ge/ : “개”(犬)/ge/

위에서 본바와 같이 /e/와 /ɛ/가 삼십대 이전층의 서울말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므로 한 phoneme으로 묶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음운체계 자체에 變化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4 서울말의 수정 정의

위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여러가지 음성학적인 특징과 음운론적인 영향 그리고 원래 서울말의 정의에서 기준으로 삼던 “서울 중류층”이라는 조건의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현대 서울말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면 어떠한 方向으로 수정을 가해야 현실에 맞는 정의를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기존 정의의 “서울태생의 중류층”을 “서울태생 또는 서울지방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코자 한다. 그 이유는” 수자상으로 옛날식의 중류층보다는 오늘날의 “교육 받은 층”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중류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애매하며 오늘날의 생활정도가 중류라고 하여 반드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태생 또는 자라온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말은 상

당히 동질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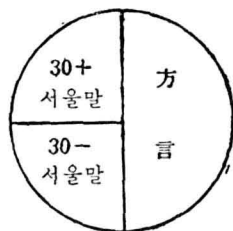
이와같이 수정된 서울말의 정의는 그전 정의 보다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으며 포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둘째로 이와 같은 서울말의 정의는 이제 완전하나 하던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世代에 따른 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의 조건에 맞는 서울사람이라도 나이에 따라 말이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第二次的으로 30代를 기준으로 한 구분을 해야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서울말을 둘로 나누어 30代 以後층의 말을 30+ 그리고 30代 以下の 말을 30-라고 정의해 둔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 “서울태생 또는 자라온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30代前後”의 두 기준을 적용하여 서울말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의 도표로 표시해보자.

30+와 30-의 서울말을 구분한 것은 현시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다시 세월이 흘러 지금의 삼십대가 사십대로 바뀌는 십년뒤에는 30+나 30-로 표시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이 世代에 따른 두 가지의 서울 말, 30+와 30-은 표준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쪽을 우리나라 표준말로 삼아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문제는 항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순수한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을 표준어로 삼아도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서울말 또는 표준말하면 모두가 30+의 서울말을 뜻하는 것이다.



3. 서울말의 모음체계

이상에서 논한 서울말을 30+와 30-로 나누어 그 음운체계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30+나 30-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선 살피면, / y /와 / ϕ /가 있다. 즉 / y /와 / ϕ /가 단모음으로서 각각 별개의 phoneme의 자격을 가졌느냐, 아니면 / y /는 / wi /, / ϕ /는 / we /로 각각 다루느냐 하는 문제다. 이미 여러학자가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따르고 같은 사람의 말에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수가 많아 一定치 않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다. 즉 흔히 들을 수 있는 음자인 $[y]$, $[qi]$, $[wi]$ 중에서 “위”라는 단어는 $[qi]$ 와 $[wi]$ 로는 발음 되지만 $[y]$ 로는 안 되는 것 같으나 “튀”나 “취”같은 말에서는 $[y]$ 나 $[qi]$ 로는 발음 되지만 $[wi]$ 로는 안된다. 앞에 자음이 없는 환경 즉 #_에서는 $[hi]$ 와 $[wi]$ 가 한 phoneme의 free variants로 쓰이고 자음이 앞서는 경우 즉 c_에서는 $[y]$ 나 $[qi]$ 가 역시 한 phoneme의 free variants로 쓰이며 동시에 $[wi]$ 와 대립되어 음운론적 差異를 나타내는 별개 phoneme이라고 볼 수 있다.

e.g.

/[y] [ɥi] / : / [wi] /

“귀” : “구이”

“취” : “추이”

여기서 [y]와 [ɥi]는 free variants 로 볼수도 있지만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대부분 서울 사람의 발음에서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變異音으로 나타나는 듯 하다. 이제 그 환경을 살펴보면 :

a) 강세가 있을 때는 [ɥi].

예) ‘귀 [gɥi], ‘취 [tɥi] (기호 [ɥ]는 여기서 파찰음을 표시함).

b) 강세가 없을 때는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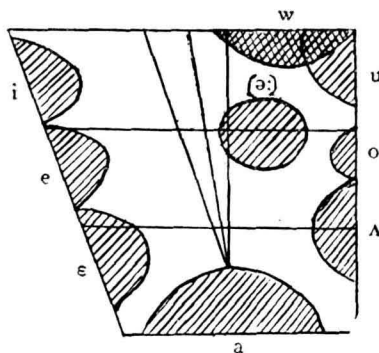
예) ‘큰귀가 [ʔkʊŋgyga]

‘생쥐를 [ʔsɐŋjyɾul]

/[y]와 /[ɥ]/의 문제는 계속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未解決로 남겨 두기로 한다.

3.1 30+의 母音體系

30+ 서울말의 모음 음소의 음가를 모음사각도 상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ə]와 [ʌ]는 장단에 따라 결정되는 /ɐ/ phoneme의 變異音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30+에서 [ə]와 [ʌ]가 음운대립을 이루어 별개의 phoneme으로 나누어 지는 예가 하나 있다 :

“열(다)” [jə:l(da)] : “열”(ten) [jʌ:l].

즉 이 예에서는 長短에 관계 없이 음가 자체가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ə:] /와 / [ʌ:] /는 별개의 phoneme으로 나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ʌ/ 까지 별개 phoneme으로 성립되어 /ə:/, /ʌ:/, /ʌ/의 삼중대립을 이룬다.

“열”(다) [jə:l(da)] : “열”(ten) [jʌ:l] : “열”(熱) [jʌl] 그러나 필자는 이와같이 /ə:/ : /ʌ:/ : /ʌ/의 삼중대립을 이루는 minimal pairs를 더 이상 찾지 못했고 이미 든 것이 유일한 예가

아닌가 한다. 이 하나의 최소 대립어를 근거로 해서 음운분석을 한다면 분명히 [a]와 [ʌ]는 별개의 음운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음운체계에도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30+ 서울말 모음의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ㄱ) 前舌—後舌

ㄴ) 閉・半閉・半開・開

ㄷ) 圓唇・平唇

위의 features 를 單母音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대립관계가 나타난다.

	前 舌		後 舌	
	平唇	圓唇	平唇	圓唇
閉	i	y	ɯ	u
半閉	e	ø	ə	o
半開	ɛ		ʌ	
開		a		

앞에 보인 모음의 조직으로 보아 30+ 서울말의 모음은 四序列 四系列 三角 조직을 이룬다고 할수 있다. 물론, 여기서 ə와 ʌ를 한 phoneme으로 묶으면 조직은 다소 달라진다.

3.2 30-의 母音體系

이미 앞에서 설명한 30- 서울말 모음 조직은 30+ 서울말의 모음 조직과 비교해 볼때 다음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훨씬 단순하다.

	前 舌		圓 唇	
	平唇	後舌	平唇	圓唇
高	i	y	ɯ	u
中	E	ø	ʌ	o
低		a		

위 그림에서 30-의 서울말은 三序列 四系列 三角組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 보다 序列 即 開閉의 한 단계가 빠져 있다.

붙임:

일부 학자간에는 모음 /ɿ/와 /ㅡ/의 음가를 中舌母音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나 현대 서울말의 모음 /ɿ/와 /ㅡ/는 음성학적으로 보아 후설모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ɿ/는 /ə/ 보다는 /r/로 /ㅡ/는 /i/보다 /ɯ/로 表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記號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음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 놓는 한 어떠한 기호를 쓰더라도 아무런 관계는 없는 것이다.